

온 마을이 키우는 영광마을학교 출발

영광교육청, 마을학교 운영 방향 협의회 열어

이광춘 대표 “다른마을학교에서 배울 점 많아”

영광교육청은 지난 31일, 2020년도 영광 마을학교 대표자와 실무자, 컨설턴트,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마을학교 운영 방안 마련과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협의회 및 연수를 실시했다.

영광 마을학교는 모량개움마을 학교, 상사화피는마을학교, 백수놀 마을학교, 연한가지마을학교 총 4곳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예술교육, 생태교육, 마을바road기교육, 문화체험교육 등 학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이번 협의회는 영광 마을학교 운영 안내와 컨설팅 순으로 실시되었으며, 마을학교 간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사고를 통해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등 마을학교 간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가 되었다.

더불어 마을학교 운영자간 매월 1회의 협의회를 통해 운영자 역량 강화 뿐만 아니라 마을학교 캠프, 성과나눔의 날 등을 운영하면서 마을학교 역량을 강화해 갈 예정이다. 협의회에 참여한 백수놀마을학교 이광춘 대표는 “마을학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마을학교 운영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며, “다른 마을학교의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배운점이 많다. 마을학교 간 정기적 만남을 통해 서로 협력하면 더 나은 영광마을학교가 될 것”이라고 말

했다.

영광교육청은 앞으로도 영광 마을학교의 정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향후 지역 여건에 맞는 마을교육공동체의 협력을 위해 박차를 가해나갈 방침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나주교육청 Wee센터,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하는 ‘행복동행’

나주교육청 Wee센터는 지난 31일 나주시 빛가람 일대에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하는 행복동행’을 진행하여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나주교육청 Wee센터에서는 겨울방학 프로그램으로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하는 행복동행,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정서적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상담, 정서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정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된 ‘행복동행’은 겨울방학 프로그램의 하나로 학생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의 즐거움을 향유하고, 대인관계에서 친밀한 상호작용을 경험함으로써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참여자는 관내 초·중·고 학생 중 상담자와 함께 문화체험이 필요한 내담자 16명과 Wee클래스·Wee센터 전문상담인력, 배려학생 멘토링 맘-폼지원단 상담자 등 19명이다.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해 책, 영화, 스포츠와 함께하는 체험과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오전에는 학생들은 관심 있는 분야

의 책 표지와 목차를 사진 찍어 책의 내용을 멘토 상담자에게 설명하고 해당 책을 선물로 받는 이벤트를 진행되었다. 오후에는 최신 개봉 영화관람과 볼링체험을 통해 상담자, 선·후배·친구들과 즐거운 분위기에서 서로 격려하며 협동심을 향상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금천중 000학생은 “상담실의 공간에서 나의 관심사가 존중받고 인정받으면서 나에게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 같다.”라며 즐거워했다. 금성고 000학생은 “평소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지만 교동편이 불편해서 자주 접하지 못했다 보니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했다. 그런데 오늘 친구들과 문화 및 볼링 체험 활동을 할 때 스마트폰 생각이 덜 났다.”라고 말했다.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앞으로도 취약한 상황에 처한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해 부모 및 자녀에 대한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더욱 활성화 시킬 것”이며 “다양한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여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기반 메이커교육으로 방학이 즐거운 전남 교사들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31일 나주교육센터에서 40여 명의 유·초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와 메이커(MAKER) 교육을 위한 실기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에서는 ‘메이커 교육 어떻게 시작하고 지속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다년 간 메이커 운동에 참여하고 연구해 온 메이커교육 전문가를 초빙해 실제로 경험하고 개발했던 자료를 중심으로 사례 발표와 그 내용을 공유했다.

또, 학교 현장에 널리 보급돼 있는 3D프린터 사용 방법과 3D펜을 활용한 메이커 교육 실습, 마이크



로보트에 센서와 액츄에이터를 연결해 메이커 작품을 제작해보는 등 실기를 중심으로 연수가 이뤄졌다.

메이커 교육은 학습자가 생각해진 아이디어를 다양한 방법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그 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다른 학습

자와 소통해 공유하는 교육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 유연한 사고를 가진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에 꼭 필요한 교육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메이커 활동 중심 과학기술 기반 융합교육을 강조해 ‘상상한 것을 실제 조작 활동으로 표현하고 공유’하는 의사소통 중심 학교문화 정착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현희 미래인재과장은 “융·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해결력 등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기르기 위해 학생 참여 중심 교과 융합형 수업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역별, 권역별 기자재 활용 실기 연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성은 기자

여수교육청, 마을학교 소외된 청소년 품다



학교 밖 청소년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을학교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1차 서류 심사, 2차 실층면접, 3차 현장 실사를 거쳐 공모의 취지를 잘 살린 최종 16교가 선정되었다.

특히, 중심 마을학교로 선정된 ‘해드림 마을학교’에서는 마을학교 간 네트워크 지원, 활동가 연수, 학교·마을·지역이 함께하는 성과공유회 발표 등 여수마을학교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더불어 상담활동, 미술치료, 원예치료, 놀이 상담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정서적 지원도 함께 담당하게 된다.

김용대 교육장은 “여수마을학교는 여수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적·문화적·생태적 환경을 고려해 마을과 학교가 상생하는 변별력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22개 시군의 대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여수=김도현 기자

“학교폭력예방 교육, 관계중심 어울림수업으로 준비”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29일과 30일 이틀 간 전라남도교육연구원에서 초·중등 교사 129명을 대상으로 어울림프로그램 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2020학년도부터 어울림수업을 모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함에 따라 교육과정 등에 기반 한 어울림수업 편성 운영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울림수업은 학생들이 공감, 의사소통, 감정조절, 갈등해결능력



등의 인성역량을 수업 시간에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수업방법에 변화를 주는 수업이다. 올해

부터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어울림수업을 학급 별로 11차시 이상 편성 운영하도록 확대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이번 연수는 전남 어울림수업 핵심강사들이 강의를 진행했으며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법과 수업계획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수업시간 학생들과의 활동을 직접 실습하는 내용으로 진행돼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김성에 학생생활안전과장은 “학교폭력예방교육이 행사, 특강 위주 교육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기반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면, 학생들의 올바른 관계와 태도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교사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허성은 기자

